

## 한승원 칼럼

##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소설가

동지가 지났다. 이 해도 저물어간다. 불아  
치는 불포한설을 끊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  
간다. 농로 가장자리에 갈대숲이 무성하다.

갈대들이 바람과 싸우고 있다. 갈대가 연  
약하다는 말은 헛말이다. 잘 변하는 여자의  
마음에 비유되곤 하는데 그것은 잘못 표현  
한 것이다. 갈대는 비록 몸이 가늘지만 그  
정체성을 감인하다.

갈대는 절대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오면 일제히 바람이 지나가도록  
잠시 몸을 풀어 헛말을 떨어뜨린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갈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갈대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

우주의 율동이 그러하다. 누군가가 우주의 율  
동이 끊지 않고 우기면 우주는 말이 없다.

그 우기던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  
멸되면 그 우김질은 우주의 유통에 의하여  
올바르게 바로잡아진다.

화장실이 있다. 그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  
은 네모로 인해 이미 후각기능이 마비되어  
흉한 범죄를 모른다.

그들은 그 범죄가 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직 범죄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  
웃사이더이다.

얼마 전에 작고한 영국의 평론가이자 작  
가인 퀄린 월슨은 새파랗게 젊은 시절에 '아  
웃사이더'라는 평론집을 냈다. 아웃사이더  
는 일상에선 무관심하고, 비현실적이지만  
존재에 대해선 끝없이 집착하는 정신적 국  
외자다. 국외자는 밖에서 엿보는 시각을 가  
진 사람이다.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서 엿보기라도 한  
듯 여기 지금 범죄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  
웃사이더인 것이다.

그는 대개의 소설가들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웃사이더라고 말함으로써 큰 반  
향을 일으켰다.

세상의 모든 올바른 의미의 지성인들은  
아웃사이더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범죄로부터 죽은 일사  
귀들이 마치 법사에게 죽기는 유령의 페  
와 같으니…… 바람이여, 예언의 나팔이 되  
어 다오! 겨울이 왔으니 봄이 어찌 멀겠느  
나!

오늘 날 자본주의 사회는 지성인으로 하  
여금 자신 앞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못하  
게 억압한다. 과거 군부 독재 세상 속에서는  
총칼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모두 권력자가 말하는 대로 '갈대  
가 흔들리듯이 모든 풀잎들은 바람 앞에서  
몸을 낮게 눕힌다'라고 말했다. 갈대는 절대  
로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비껴  
주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간다고 말하  
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천동설이 대세이던 어두운  
중세에 지동설이 읊음을 알고도 그렇게 주  
장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름없었다.

겨울바람이 차고 드드드. 험석한 선생이,  
중세의 암흑시대 같은 유신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셀리의 '서풍'에 부치는 노  
래'의 한 구절은 늘 내 가슴을 늘 뜨겁게 하

고 설레게 한다.

'오, 거센 서풍이여, 너, 가을의 산 숲결이  
여, 너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죽은 일사  
귀들이 마치 법사에게 죽기는 유령의 페  
와 같으니…… 바람이여, 예언의 나팔이 되  
어 다오! 겨울이 왔으니 봄이 어찌 멀겠느  
나!'

셀리는 이상주의적인 비전을 섬세한 감성  
으로 노래한 남만과 서정 시인이다. 그의 시  
를 우여무선 나는, 모든 암제와 인습에 대한  
반항과 이상주의적인 사랑과 자유를 동경한  
그 시인의 마음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려 한  
다.

'바람이 분다, 살려고 애써야 한다.'

이것은 프랑스 시인 폴 벨라레의 시 '해변  
의 묘지' 끝부분에 있는 한 구절이다. 거기  
에는 죽음에 대한 명상과 생명 예찬이 가슴  
또겁게 닦겨 있다.

이 해가 저물어간다. 꽃들이 십일 이상 피  
어 있지 못했으니 요즘 밤하늘의 달도 기울  
고 있다. 바람이 거세고 맙차다. 갈대들은  
지금 바람이 지나가도록 비껴줄 뿐 흔들리  
지 않는다. 바람이 자면 갈대는 꽂꽂이 일어  
설 것이다.

## 社 說

## 철도파업 언제까지 대치로만 갈 건가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노총 본부의 경찰 강제 진입에 반발해 민노총이 예고한 대로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한국노총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 간에 극한 대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장기화된다면 정부와 노조 모두 국민의 엄중한 질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가의 대동맥인 철도를 불로로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노조와 정부의 강경 일변도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다를 바 없다.

초강수로 맞서는 양측의 대응방식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철도 개선책이 민영화가 아니라 전명했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는 책임을 떠넘긴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 측이 대화 내지 수긍할 만한 명분을 내놓았는지, 파업 이후 강경조치로 인해 노조

를 더 자극하지 않았는지 물고 싶다.

반면, 철도 운행합리화 계획이 나올 때마다 파업을 들고 나오는 노조 또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기간시설인 철도를 민영화할 수 없다는 노조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혹여 이번 파업이 '절밥통膨  
기기'의 일환이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이 엄존하고 있음을 노조는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민노총이 실행에 옮기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의사회까지 원격의료 도입 반대 등을 표방하며 파업을 예고해 차지 국가적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으면 한다. 노동계도 파업을 할 것이다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서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정부·노조가 대화와 타협에 나설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질적 어린이집 비리 발본색원 나서야

영유아들에게 쓰어야 할 보조금이 어  
린이집 원장들의 도덕불감증과 행정기  
관의 무관심 속에 줄줄 새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원장들이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행사비 등 국가와 학부모에게  
서 나온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착복해온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조금을  
가로채 적발된 어린이집은 전남 15곳,  
광주 56곳에 불과한 원장 수만  
무려 35명에 달한다. 이들이 빼돌린 보  
조금이 34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광  
주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은 5년여 동안  
3억5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 국립대 병원, 개  
인 종합병원, 국·사립대 등 '믿고 맡길  
다'는 직장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었  
다. 광주의 한 국립대 직장 어린이집은  
교재비, 강사비 등 모두 1억6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보조금을 쟁취고, 이 돈으로 원  
장들끼리 결성한 '번호계'에 부었다니

기자 마힐 때마다.

원장들의 보조금 횡령은 사실 어제오  
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고질적 비리  
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  
의 관리·감독 부실과 솔방망이 처벌에  
있다. 무엇보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디에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않고  
있으니 비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시·군별 교차점검에서 원장들의  
착복 사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도

부실 조사 등 의혹을 사기로 충분하다.

또한 어린이집 회계서류 등 점검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법상 처벌규정이 없  
다는 것도 비리의 요인이다.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만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어린이집 비리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그 피해가  
애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떠안게 된다  
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법적 조치 강  
화는 그 출발점이다.

無 等 鼓

기원전 260년 한나라 적양성에 살았던  
여불위(呂不韋)는 거상(巨商)이었다.  
물건값이 쌀 때 사 모았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  
쌓아온 재물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필요해진 여불위는 '사람장자'  
를 시작하고자 했다.

여불위는 우선 진나라 태자 안국군  
(安國君)의 서자로서 조나라 수도 한단  
에 인질로 잡혀와 있던 자조(子楚)에게  
접근했다. 돈으로 자

초의 환심을 산 여불  
위는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 여불위는 자초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안국군이 총애하는 황양부인에  
게 귀한 선물을 보내도록 했다. 감격한  
황양부인은 왕이 된 남편 안국군을 움  
직여 자초를 태자로 책봉했다.

여불위는 한 솔 더 떠 자신의 애첩 '조  
희'미자 자초에게 바친다. 자초가 조희를  
눈여겨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  
불위의 아이를 임태한 채 자초에게로 간  
조희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커서 종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됐다.

아버지 안국군이 죽은 뒤 장양왕으로  
등극한 자초는 주자율임을 헤매다 3년  
/총행기 사회팀 redplane@kwangju.co.kr

만에 죽고, 왕위에 오른 13살의 어린 왕

은 여불위를 중부(仲父)라 부르며 모든  
정사를 맡긴다. 실권을 장악한 여불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진시황이 장성해 친정을 펴게  
되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여불위의  
부귀영화도 물을 내린다. 태후가 된 자  
신의 애첩 '조희'와의 불륜을 비롯해 그  
동안 감춰졌던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모

든 직책과 봉지를 박탈당한 여불위는  
유배지에서 드루지로 돌아온다.

시고 자결한다.

최근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가 관련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정은이 리설주를 부  
인으로 간택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의 추  
천이 큰 역할을 했고, 장성택이 리설주  
를 통해 일종의 성장을 시도하려다 김  
정은의 분노를 샀다는 것이다.

북한이 위낙 폐쇄된 사회여서 확인하  
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사실이라면 장  
성택과 여불위 둘 다 사람장사를 했고  
처참히 몰락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 '사람'보다 '장사'가 앞선  
만은 뒤끝이 좋지 않은 법이다.

/총행기 사회팀 redplane@kwangju.co.kr

계해 지역의 이미지가 확실히 높아지는 계  
기가 되었다.

F1대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  
다. 전국 27개 자동차 경주대회 중 18개가 F  
1경주장에서 개최되고 있고 국내 굴지 자  
동차회사에서 자동차 성능 테스트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첨단 자동차 관  
련기술과 산업이 들어서고 경주장 배후부  
지에 세계적인 어린이 자동차놀이공원과  
같은 레저시설이 조성된다면 관광산업 활  
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단기적인 시각만 가지고 F  
1대회를 개최하느냐 마느냐 논쟁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가  
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  
어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  
다고 본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전남의 자동차 연관산업 육성 등 미래를  
보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  
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나도 동네 목욕탕에 자주 가지만 소득이  
나 청소 때문에 목욕탕이 폐점한 것을 한 번  
도 본 적이 없다. 목욕탕은 24시간 따뜻하며  
수분이 꽉 들어차 어떤 균이든 변성할 수 있  
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므로 간  
염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발병이나 전염  
가능성이 대해 적절한 조사와 함께 예방과  
차단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희호·광주시 서구 농성동

光 州 日 报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 10-2(우편번호 501-711)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면집부 2200-649 여론조사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51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고

## F1대회, 지역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김호남  
목포